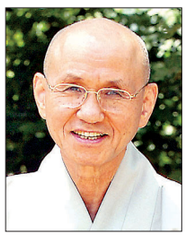
# “세간 떠난 깨달음은 토끼뿔 · 거북털”

## 월주 스님, 60년 수행 회고록 펴내



한국불교 정화운동과 조계종단 개혁, 2번의 총무원장 소임, 10 · 27법난 등 현대 한국불교사의 중심에 섰던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사진〉이 60년 수행생활을 정리한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과 법어집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사진집 〈태공〉을 출간했다.

월주 스님은 9월 26일 금산사 화림선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서 출간 배경과 그간의 소회를 풀어냈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제목과 관련해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찾는다면 이는 토끼뿔과 거북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육조 혜능대사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법재세간(佛法在世間) 불리세간각(不離世間覺) 이세멱보리(離世覓菩提恰) 여구토각(如求兎角)’에서 따온 것이다.

월주 스님은 이 자리서 한국불교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종교지도자는 세상의 빛이 돼야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도리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불교는 아직 멀었다. 수행공간을 갖고 있고 수행력은 있지만 세상을 이끌고 계도할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학들에 의해 생겨나는 큰스님들의 임종게 · 오도송에 대한 우려의 뜻도 전했다.

월주 스님은 “큰스님들이 생전에 임종게 등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입적 후 오도송과 임종게가 발표될 수 없다”며 “나의 임종게는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님은 10 · 27법난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자성을 나타내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소녀상 철거에 반대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건과 관련해 “국민의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당초 80세까지 활동하려 했으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미수(88세)까지 활동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꽃무릇 물든 선운사, 1500년의 울림

## 9월 24일, 상생 페스티벌 선운문화제

온 산하를 빨간 꽃무릇이 붉게 물들인 전북 고창 선운사서 지역 대표 불교축제인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4일 선운사 일원서 ‘1500년의 울림 상생 페스티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이번 문화제는 산사의 품격과 지역 상생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만세루서 열린 꽃무릇 시화전으로 문을 열었다.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시원류〉 경판이운식에서는 108명의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경판을 직접 머리에 이고 천왕문을 거쳐 경내 법계도를 돌아 스님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기리는 보은염 이운식이 봉행됐다. 이는 다른 사찰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 상생의 표본으로,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100여 명의 검단마을 주민들은 마을서부터 선운사에 이르기까지 소금을 직접 이운해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보은염 이운식을 재현했다. 이운식에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김상호 고창부군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구본일 BTN불교TV 사장, 방송인 선우용녀, 선운사 신도회 임원 등이 이운 행렬을 맞았다.

경내에 어둠이 내려앉자 선운사 앞마당 특설무대에는 선운문화제의 백미인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산사를 찾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성진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막을 올린 산사음악회는 식전공연으로 선운사 합창단과 전주 크로마하프팀, 동국대 힐링

### 산사 · 지역 상호발전 도모
### 보은염 이운식 등 행사 다채
### 산사음악회서 법음 전하고
### 불교문화체험에 신심 다져

코러스팀이 무대에 올라 ‘진리의 빛’ ‘선운사’ 등 불자와 대중이 익숙한 곡을 연주해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산사음악회의 연주를 맡은 40인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선운사서 초연된 ‘축제를 위한 상강례’를 서곡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였다. 초청가수로 무대에 오른 도신 스님은 ‘목탁새’ ‘무상’ 등을 열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선운사 스님들과 108명의 불자들이 〈석시원류〉 경판을 머리에 이고 경내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또 소프라노 이정화, 바리톤 송기창, 테너 하만택 등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 가을 문턱에 들어선 산사의 밤을 밝혔다. 무대의 마지막은 전 출연자와 관객들이 하나 돼 ‘친구여’를 합창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경내 곳곳에서는 인경체험, 선운사 108보물찾기, 고창주민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직거래장터, 셀카포토대회 등이 열렸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1500년의 역사와 보은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고창의 자랑이자 정신이다”며 “가을 산사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배경삼아 최고의 출연자들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에 흠뻑 젖어 선운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관계자는 “올해 선운문화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운사는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환경, 소중한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봄철의 동백꽃과 가을의 고풍스런 단풍과 함께 어우러지는 붉은 꽃무릇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큰스승 도광 · 도천 스님 기리며”

## 구례 화엄사, 합동추모재 및 도천 스님 부도비 제막



근대 구례 화엄사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두 스승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화엄사(주지 영관)는 9월 23일 화엄사의 가람중흥과 수행정신을 통해 화엄종찰의 가치를 높인 이산당 도광 스님(1922~1984)과 도천당 도천 스님(1922~2011)의 합동 추모재와 도천 스님의 부도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평생 수행도반이었던 두 스승의 부도는 한 곳에 모시고, 부도비만을 별도로 세워달라는 유지에 따라 앞서 세워진 도광 스님의 부도비와 부도탑 옆에 도천 스님의 부도비가 마지막으로 세워졌다.

이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32주기, 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5주기를 맞아 봉행된 합동추모재에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한 도광, 도천 문도회 소속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두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다.

문도대표 명선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화엄사 문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큰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받아 문도가 서로 화합하여, 화엄종찰의 발전에 이바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관 스님은 기념사서 “연기조사의 서원을 바탕으로 한걸음에서 시작되었듯이, 부도비 제막을 통해 본사부터 솔선수범하여 문도 스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고, 화엄문도의 많은 후학들이 종단의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죽비삼배, 행장소개, 헌다, 반야심경 독송, 헌화, 경과보고, 문도대표 인사, 불사 공로자 감사패 증정, 인사말 등 기념식에 이어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것으로 전해진 적멸보궁 터에 대한 개축불사 상량식도 함께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왕실 축복’ 받으며 도봉산 오른 석가탑

## 천축사, 10월 9일 행원산신대재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인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왕실 축복 속에 도봉산을 오른다.

도봉산 천축사(주지 함결)는 10월 9일 사찰 일대서 ‘2016 천축사 행원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석가탑 ½ 크기로 축소 제작한 석탑을 대중에 공개한다.

천축사 석가탑 공식 명칭은 ‘석담석가탑’. 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석구조물 분야) 이의상 선생과 석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 김식경 선생이 함께 만들었다.

천축사는 석담석가탑 공개와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과거 천축사의 장엄함을 연출할 계획이다. 특히 천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왕실과 맺었던 인연을 알리고자 ‘왕실 행차 재현의 식’을 실시한다. 이 의식은 왕과 왕비가 천축사에 행차해 향과 축문, 지전을 하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봉행된 천축사 행원산신대재. 사진제공=천축사

천축사는 이와 함께 새롭게 정비된 경내 조경을 선보이고, 행원산신대재를 담아내는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한다. 국립국악단 축하공연과 도봉산 장엄길 기원행사도 열린다. 장엄길 기원행사는 서원터 주차장서 천축사 일주문을 거쳐 경내까지 이어지며, 꽃비와 리본 장엄, 행원 형상물 설치, 마임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천축사 측은 “천축사가 천년고찰 면모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도량을 정비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천축사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천년고찰에 걸맞은 사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축사는 673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1398년에는 조선 태조가 이곳에서 유숙한 이후 기도처로 삼았고, 이 인연을 바탕으로 중창됐다.

(02)954-1474 윤호섭 기자

# 탑사 갑룡장학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9월 23일 진안 한방타운 강당서 이현교(진안여중 1) 학생 등 35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총 108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탑사 회주 혜명 스님,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 이항로 진안군수, 박금석 복성장학회장, 김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은 “장학금이 공부하는 데 비록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이 사회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성 스님도 “진안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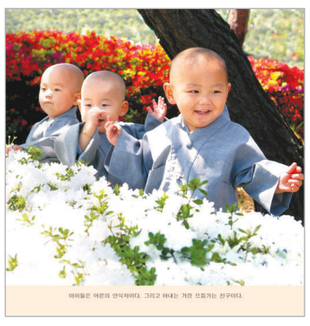
12절 258㎜×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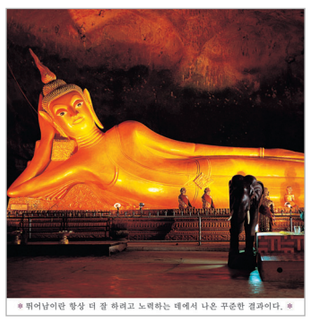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